



어린이 독서왕 목포 북교초등 전대원 군의 독서법

“책은 내 마음속의 운동장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1천500여 권의 책을 읽고, 틈틈이 쓴 시와 산문들을 모아 책을 펴냈다. 각종 글짓기 대회에 나가 수상한 것만도 400차례 가까이 된다. 집의 거실과 안방 등 벽이란 벽은 모두 책장 또는 책으로 도배돼 있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독서왕에 선정됐는가 하면 시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뛰어노는 것이 가장 즐거울 나이지만 아이에게겐 책이 운동장이자...

목포 북교초등학교 4학년 전대원(11)군의 이야기다. 최근 출간된 전대원 군의 ‘시 쓰는 검찰총장이 필요요’는 대회 수상작 중 100여편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전대원 군이 가장 좋아하는 시 ‘번개 치는 날’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비바람 불던 어느 날, 성난 하늘을 보며 무서워하던 동생의 모습에서 조대 대호의 대시 226편 ‘검찰총장님! 금요일 아침에야 내 드레스를 33번 다들 4400번’...

책 좋아하는 아이는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시 쓰는 검찰총장이 돼 노벨문학상을 받고 싶은 아이, 대원이는 어떻게 해서 책에 푹 빠졌을까.

책이 장난감

우선 집에 책이 많았다. 책 대리점을 하던 아버지 전근옥(43)씨는 “장난감을 모두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책 자체가 대원이에겐 훌륭한 장난감이었던 셈”이라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때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기 보다는 관련 책을 구해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한글을 깨우쳤던 4살 때쯤 대원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아버지는 ‘장난감 나라의 등’ 자동차가 나오는 동화책 뿐 아니라 ‘자동차 생활’과 같은 성인용 잡지를 구해줬다. 대원이는 책이 너털 너털해질 때까지 들여다보며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다. 책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론 그야말로 책이 장난감이었다. 집에 널려 있는 것이 책이었고, 5살 되던 해에는 주로 할머니가 있는 영암군 삼호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책 외에는 딱히 가지고 놀 것도 없었다. 대원이는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에서 책으로 옮겨다녔다. 지금도 독서를 하면서 수시로 의문나는 사항들을 쪽지에 적는다.

책이 왜 좋냐는 질문에 대한 대원이의 답은

궁금한 것은 알고 간다

간단 명료하다.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라는 것이 대원이의 독서 이유다. 현재 대원이가 즐겨 읽는 책은 고등학교 수준의 ‘누드 교과서’ 시리즈다. ‘법과 사회’ 편을 읽고 최근 ‘생물’ 편을 읽고 있다. ‘법과 사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추해석’의 의미다.

“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을 때 비슷한 사건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법의 탄력적 적용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해설과 사례들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모르는 단어들은

쓰는 일의 일상화

대원이가 지금까지 쓴 일기는 수십권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일기는 형식이 다양하다.

속내나 의무처럼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꼈던 점을 시로 또는 독후감으로 풀어 놓았다. 때로는 그냥 읽었던 동화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글을 쓰는 일이 즐겁다.

한 달에 30~40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은 하루에 하나 정도 쓴다. 다독다작(多讀多作)이다. 대원이가 ‘문학영재’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써 놓은 독서노트와 일기장을 합치면 30권이 넘는다. 아버지 전씨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쓴 일기를 모아 모아 책처럼 제본을 해 놓았다.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 쓰는 일이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읽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의 책에 실린 ‘미인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복제에 대해서’, ‘언어와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등의 글은 생각의 논리정연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이 왜 좋냐고요?”... “몰랐던 것 알 수 있어서”

한달 평균 30~40권 읽고 독후감은 날마다 써

“시 쓰는 검찰총장 돼 노벨문학상 받고 싶어요”

사전을 찾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백과사전을 뒤진다.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요즘엔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생물’ 책에서 몰랐던 신체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솔솔하다는 것이다. 곤충에 관한 책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동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케이블 채널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본다.

전대원 군이 가장 좋아하는 자작시

번개 치는 날

하늘에 까만 구름 자꾸 늘어 가면 환하던 방안이 점점 어두워진다.

우르르 광광 천둥소리 들리고 반짝 반짝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불빛

어두운 방안 누가 있나? 옛보던 번개 겁에 질린 내 얼굴을 자꾸 찍는다.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광주시에 한 서점에서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책을 고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어린이 독서지도 10계명

- 1. 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도 읽게 된다.
2.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놓아두자.
3. 책을 읽고 이 야기를 나눠 보자. 다독(多讀)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4. 책을 읽은 느낌을 써보게 하자. 쓰기에 재미를 붙이면 책을 더 잘 읽게 된다.
5. 아이의 흥미에 맞는 책을 읽게 하자.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한 뒤 관심 영역을 넓혀가라.
6. 읽은 책은 꼭 모아 두자.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준 책은 배껴져도 되므로 중요하다.
7. 아이와 함께 책방에 가보자. 아이들은 많은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8. 책 읽는 요령을 알려 주자. 이야기책과 정보 책은 다른 요령으로 읽어야 효과적이다.
9.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 보자. 아이가 내용을 생각할 여유를 준다는 느낌으로 읽어준다.
10. 책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마법의 지팡이’임을 깨우쳐 준다.

(자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민음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주), 토우드공인중개사, 다우공인중개사, 무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s Korea, and others.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